

順菴 安鼎福의 窮理-力行的 공부론

— 『下學指南』을 중심으로

朴智顯*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순암의 하학관과 『하학지남』의 공부론 |
| II. 『하학지남』의 판본과 체재 | IV. 맺음말 : 순암 공부론의 특징과 의의 |

• 국문초록

이 글은 順菴 安鼎福(1712~1791)의 『下學指南』을 중심으로 窮理-力行的 下學 공부론 체계를 고찰한 것이다. 순암의 하학공부론은 성인의 학문인 爲己之學을 목표로 循序漸進하는 공부방법에 따라 제시된 窮理-역행의 체계이다. 窮理-역행의 공부론은 『中庸』에 근거하여 知(明善)과 行(誠身)의 구도에 따른 것이다. 窮리는 致知로 진행되지만, 순암은 格物의 대상을 일용의 彝倫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하학의 공부내용은 灑掃應對와 같은 소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순암이 말하는 공부는 일상적이고 내면에 절실한 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공부해 나아가 상달하는 과정이다. 하학을 강조하는 것은 하학이 아니면 上達할 길이 없다는 공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인륜규범을 실천하는 것이 하학의 목적이 아니다. 하학은 선행적으로 도덕적 실천의지를 확립하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부과정은 窮理-역행으로 진행되는데, 窮리는 실천으로 귀결되지만 철저한 치지가 바탕이 되므로 독서를 통한 치지가 역행에 선행한다. 『하학지남』 상권 「爲學」편은 이러한 공부순서에 따라 章을 배치한 것이고, 「心術」편은 「위학」편의 내용을 심화시킨 것이다. 공부의 전과정에서 敬의 태도가 관철되며, 공부의 공효처로 설정된 誠은 하학공부의 최종 귀착점인 상달의 경지이다.

*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성리학의 공부론은 형이상학적 근거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지만, 순암은 오직 일상생활의 범위내에서 근거를 확보하고 규범을 실천하고자 했다. ‘下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유교의 본지에 충실한 올바른 공부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학지남』은 『小學』과 성격이 구분된다.

주제어 : 안정복, 『下學指南』, 공부론, 窮理-力行, 知行, 循序漸進, 彝倫

I. 들어가는 말

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下學은 『논어』의 “下學而上達”에 연원을 둔 것으로 비근한 일상적인 일에서 공부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하학지남』은 순암이 29세(1740년)에 편찬한 것으로 경전과 선유의 언행에서 일상의 인륜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집록한 것이다. 이 책은 초학자의 입문 지침서 이면서 『대학』의 학문적 규모를 갖춘 교육사상사로 소개되었다.¹⁾ 순암이 만년에 「題下學指南書面(1784)」²⁾에서 “소학의 예를 본 때 이 책을 만들었다.(倣小學例爲此書)”라고 하였으며, 공부내용도 소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선행연구에서 『하학지남』을 변형된 소학류의 일종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³⁾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하학지남』이 연구되면서, 순암의 하학관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제시되었다. 최동희는 하학을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성인되기를 추구하는 자기 완성의 학문으로 설명하고, 하학의 일상성과 구체성을 순암의 실학적 측면으로 파악했다.⁴⁾ 이채구는 『하학지남』이 조선시대 교육이론과 실체가 집대성된 선비 교육의 지침서로 소개하며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검토했다.⁵⁾ 정낙찬은 『하학지남』을 동몽교재로 규정하여 초등교육사상의 측면에서 현대 교육적 의미를 고찰했다.⁶⁾ 이후 정철민도 현대 교육이론과 비교하였다.⁷⁾ 이상의 연구에서 『하학지남』의 성격을

1) 하학지남 해제, 『순암전집』, 여강출판사, 1984 참조.

2) 이하 ‘제문’으로 약칭함.

3) 정순목은 『하학지남』을 율곡의 『격몽요결』, 박세무의 『동몽선습』, 이덕무의 『사소절』, 정약용의 「아학편」 등과 함께 조선의 5대 동몽 교육서로 보았다(「조선시대 교육명저순례」 『교육신서』, 128, 배영사, 1987, 138면).

4) 최동희, 「안정복의 서학 비판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5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1976.

5) 이채구, 「안정복의 『하학지남』」, 『교육연구』 9,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0. 이채구는 1991년 변역 『하학지남』을 출간했고(『국역 하학지남』, 신성문화사, 1991), 2006년 개정판을 출간했다(『국역 하학지남』, 장서원, 2006).

6) 정낙찬, 「순암 안정복의 초등교육사상-하학지남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12, 한국교육철학회, 1994.

7) 정철민, 「순암의 공부론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하학을 중심으로」, 『동방학』 4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대체로 초학자의 입문서로 규정하거나 초등교재로 파악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등장한다. 강세구는 하학은 낮은 단계의 공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도리를 우선시(先務)하는 공부의 순서를 가리킨다는 점을 지적했다.⁸⁾ 이정행도 하학을 先務의 의미로 보았는데, 순암이 하학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실학적 전환이라고 보았다.⁹⁾ 조성애도 하학은 急先務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며, 『하학지남』은 타인을 위한 교육서가 아니라 자기교육론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하학이 낮은 단계의 학습과정이 아니라 우선시해야 할 급선무의 의미라고 주장한다.

순암의 학문관을 고찰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하학지남』은 빠짐없이 거론되는데, 순암의 실학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하학을 순암 실학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¹¹⁾ 순암은 인륜을 수행하는 하학공부를 이기심성론 등의 성리설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대비하여 ‘實學’이라고 하였다. 순암의 ‘실학’이 오늘날 개념화한 ‘실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순암은 수기치인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는 사대부의 삶과 실천을 위한 확고한 인식의 기초를 수립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인륜수행에 중점을 두는 하학공부를 통해 유교적 인격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순암의 하학에서 실학적 요소가 발견될 수 있지만, 이봉규의 지적대로 순암은 유교적 인륜의 실천에 중점을 두었을 뿐, 당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제도 개혁 등의 경제정책면에 대한 문제의식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¹²⁾

순암은 『하학지남』을 저술하면서 서문이나 발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문에 해당하는 「題下學指南書面」을 만년에 작성했다. 제문에 『하학지남』의 저술의도나 하학 공부론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도 대체로 만년에 작성한 제문을 중심으로 순암의 하학관을 논의하였다.

8) 강세구, 「『하학지남』을 통해 본 안정복 학문의 성격」,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1994.

9) 이정행, 「하학지남에 나타난 순암 안정복의 교육사상」, 『사회과학연구』 7, 광주대학교, 1997.

10) 조성애, 「순암 안정복의 하학론-『하학지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1), 한국교육사학회, 2010.

11) 정순우, 「순암 안정복의 공부론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6, 한국실학학회, 2003; 김인규, 「순암 안정복의 학문적 연원과 그 특징」, 『한국사상과 문학』 2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12) 이봉규, 「순암 안정복의 유교관과 경학사상」,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학회, 2000.

『하학지남』의 전체 내용도 검토되었으나, 각 권과 편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쳤다. 순암은 『하학지남』의 각 편장에 간략한 안설을 붙여 놓았다. 안설은 대부분 각 편장의 첫머리에 붙어 있으며, 본문 중간이나 끝에 붙인 경우도 있다. 안설에서 순암은 각권과 편장의 취지와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자신이 설계한 공부론에 따라 편장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장의 순서는 공부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었으며, 각각의 주요 공부 내용들은 다른 공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안설에서 밝혀놓았다. 그러므로 안설은 『하학지남』 전체를 이해하고 순암 공부론을 파악하는데 관건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안설이 언급되지만, 『하학지남』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활용될 뿐이다.

『하학지남』은 수권과 상·하권 3권인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수권이다. 상권과 하권은 각각 체와 용으로 구분하여 내면의 공부와 외면의 공부로 설명했다. 그 중에 상권의 「위학」편에서 순암의 하학공부론이 궁리-역행의 체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학지남』은 학문이 실천과 괴리되는 지식탐구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순암이 하학을 강조하는 것은 『중용』에서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에서부터 가며, 높은 데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오른다(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라고 한 것처럼 공부의 순서상 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공부과정을 『하학지남』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학지남』이 초학자의 입문서나 동몽서로 파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암이 하학을 중시하지만, 『논어』에서도 하학은 상달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순암 역시 하학이 곧 상달이라고 하므로 상달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순암은 하학이 아니면 상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순암의 하학이 상달하기 위한 공부방법이며, 궁리-역행의 체제로 구성되었음을 밝히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 『하학지남』의 판본과 체재를 간략히 검토하여 『하학지남』 상권 「위학」편이 하학공부론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3장에서는 순암이 하학에서 상달로 단절없는 공부과정을 궁리-역행의 체재로 제시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순암의 하학공부론의 특징과 『하학지남』의 성격이 구명될 것이다.

II. 『하학지남』의 판본과 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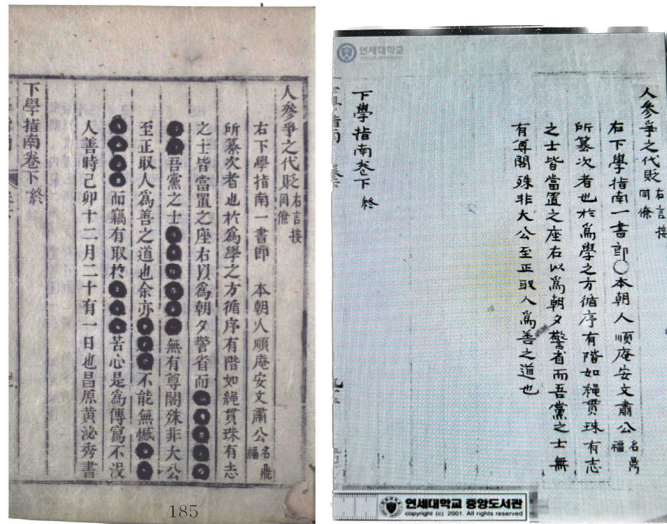
지금까지 『하학지남』의 판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3종의 필사본이 전해진다.

〈표 1〉 『하학지남』의 판본 비교

	소장처(약칭)	표제	판사항	형태사항	주기
1	규장각본	下學指南	筆寫本	2책 24.4×15.6cm	• 題下學指南書面(1784) • 庚申(1740)夏編輯于廣州靈長山德各里之精舍 • 下學指南目錄 • 교정부호 • 독서차제도
2	국립중앙 도서관본 (국중본)	下學指南	筆寫本 서문, 목차 (금속활자)	2권2책 25.5×16.8cm	• 題下學指南書面 • 庚申夏編輯于廣州靈長山德各里之精舍 • 하책 마지막 장: 黃泌秀 寫
3	연세대중앙 도서관본 (연세대본)	下學指南	筆寫本	2권2책 26.2×18.5cm 10행22자	• 題下學指南書面 • 庚申夏編輯于廣州靈長山德各里之精舍

규장각본은 전체가 필사본으로 교정부호가 남아 있어 순암의 친필로 추정된다.(『順菴叢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0.) 국중본은 1879년 黃泌秀가 정사한 것으로 서문과 목차가 금속활자이다.(『순암전집』, 여강출판사, 1984.)¹³⁾ 연세대본은 필사시기와 필사자를 알 수 없지만 국중본을 저본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판본은 규장각본-국중본-연세대본 순으로 필사된 것이다.

13) 이 글은 여강출판사에서 영인한 국중본 『하학지남』을 저본으로 삼고 다른 판본도 참조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본〉

〈연세대학교 도서관본〉

〈그림 1〉 국증본과 연세대본 필사비교

두 본의 필사상태를 비교해보면, 연세대본에서 필사자 황필수가 작성한 마지막 구절 “而竊有取於●●●苦心是爲傳寫不沒人善”과 필사 날짜인 “時己卯十二月二十有一日也”, 그리고 필사자 정보 “昌原黃必秀書” 등이 삭제되었다. 국증본에서 먹으로 지운 부분을 연세대본에서 삭제하고 정서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삭제된 이유는 황필수라는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황필수(1842~1914)는 19세기 후반 이름난 한의학자 黃度淵(1808~1884)의 아들이다. 그는 의학보다는 성리학에 전념했는데, 그의 집안은 선대부터 송시열의 문인과 교류한 노론의 학맥이었다. 그는 24세(1867)에 『達道集註大全』을 편찬하고, 『斥邪說』을 저술하였다. 『달도집주대전』은 달도에 이르기 위해 인륜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인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척사설』의 저술은 순암의 『천학문답』을 참고하였다고 한다.¹⁴⁾ 황필수가 순암의 저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무렵부터였던 것으로 보이며, 『하학지남』을 필사하게 된 것도 순암이 인륜의 실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세대본의 필사

14) 황필수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였다. 노대환, 「慎村 黃泌秀(1842~1914)의 사상적 행보」,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자는 국중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그 필사자가 노론 학맥의 황필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필수가 작성한 내용 중에 순암을 ‘安文肅公’이라고 칭한 것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순암에게 ‘文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것은 1871년(고종8)이다. 황필수가 『척사설』을 저술할 당시는 조선에서 척사가 고조된 시기였다. 다양한 형태의 척사서들이 등장하였으며, 당파를 막론하고 순암을 척사운동의 선구적 인물로 부각시켰다.¹⁵⁾ 따라서 순암에게 내려진 시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학지남』은 『소학』의 체재를 모방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제 편장의 항목 구성을 비교해 보면 의견상 차이가 있다.¹⁶⁾ 그러므로 순암이 『소학』의 예를 본떠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학』은 「立教」·「明倫」·「敬身」을 앞에 배치하고 「稽古」·「嘉言」·「善行」의 3편을 뒤에 배치하여, 앞의 3편을 강령으로 삼고 뒤의 3편에서 구체적 사례로 실증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하학지남』은 首卷에 「日用篇」을 별도로 두어 하루의 공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부내용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순암은 상권과 하권을 體와 用이 된다고 하였으므로,¹⁷⁾ 『하학지남』의 상권은 『소학』의 강령에 상응하고, 하권은 『소학』의 사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학』은 일상생활에서 인륜의 수행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는데, 주희에 따르면 소학공부는 事君과 事親 등을 수행하는 일(事)이고, 대학공부는 그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¹⁸⁾ 『소학』은 인륜의 이치를 탐구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

15) 1801년 신유박해를 주도한 노론 정권은 순암에게 척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관직을 추증했다. 신유박해는 표면적으로 천주교 박해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론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암에게 관직을 추증한 것은 신유박해로 숙청된 남인들을 달래기 위한 보상이었다. 순암이 『천학문답』을 저술하고 천주교에 반대한 것은 천주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성호학파의 소장학자들이 천주교에 경도되는 것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순암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후에 척사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순암에게 관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등 일련의 포상은 척사의 대표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킨 것이다.

16)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순암이 『소학』의 체재를 본떠 만들었다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 실제 『소학』의 체재를 어떻게 따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17) 『下學指南』 권상, “按, 此篇言工夫之存乎內者, 而爲下卷之體.”

18) 『朱子語類』 7:7, “小學是事 …… 大學是發明此事之理.”

에서 구체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내면의 덕성을 자연스럽게 함양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순암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륜의 일(事)을 하학이라고 하였으므로, 『하학지남』의 기본 취지는 『소학』과 다르지 않다. 소학의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륜이라면,¹⁹⁾ 『하학지남』은 위학이다. 『소학』은 오류의 일(事)에 대한 실천적 항목을 중심으로 모아놓고 그 당위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만, 『하학지남』은 『소학』의 수행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편장과 항목 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학지남』은 총 3권, 9편, 5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권의 편장은 다음과 같다.

〈표 2〉 『하학지남』의 편장 구성

	편	장
首卷	日用	총3장 夙興 日間 夜寐
上卷	體	讀書 總10장 讀書之義 讀書之序 讀書之法 讀小學四書 讀諸經 讀性理諸書 讀史 尙論附)寫字 附)作文
	爲學	총12장 總論 立志 變化氣質 窮理 力行 存養 省察 克治 敦篤 論敬 論誠 異端
	心術	총8장 誠意 正心 養氣 操存 喜怒 逸慾 器量 誠實
下卷	威儀	총6장 總論 敬身 正容 謹言 衣服 飲食
	正家	총13장 總論 孝敬 居喪 祭祀 友愛 夫婦 教養 冠禮 婚禮 敦睦 禦下 治產 儉約
	處己	총7장 持身 處事 操守 義命 改過 辭受取與 出入往來
	接人	총7장 長幼 師友 接賓 待人 敦義 處世 居鄉
	出處	총4장 總論 事君 治道 居官

수권 〈일용〉편은 「夙興」, 「日間」, 「夜寐」 3장으로 하루 12시각의 일과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일과는 집안에서 일상생활과 공부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순암 자신의 시점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장명은 『시경』의 ‘숙흥야매’²⁰⁾에

19) 진원, 「『소학』의 구성내용으로 본 주자의 소학론」,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548면.

20) 『詩經』 「大雅」〈抑〉, “夙興夜寐, 灑掃廷內, 維民之章.”; 「小雅」〈小宛〉, “夙興夜寐, 無忝爾所生”; 「衛風」〈氓〉 “夙興夜寐, 靡有朝矣.”

서 가져온 것으로, 송대 陳柏(미상)은 하루의 시간 순서에 따른 공부방법을 제시한 「숙흥야매잠」을 지었다. 퇴계는 『성학십도』 제10도에 직접 그린 도와 함께 수록했다. 그런데 성호는 퇴계의 도설이 하루 12시간을 순환하는 공부(循環十二時功夫)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도를 다시 그렸다.²¹⁾ 성호가 그린 「숙흥야매잠도」가 순암의 「일용」편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순암의 「일용」편을 도식화한다면 성호의 「숙흥야매잠도」와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일용」편이 검토되었으나²²⁾, 성호의 「숙흥야매잠도」와 비교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연구주제이므로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비록 하루를 12시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김굉필의 행장에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의 일과가 기록되어 있으며, 율곡의 『격몽요결』 「事親章」에도 매일 날이 밝기 전부터 잠들때까지의 부모를 모시는 일에 대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구체적인 의절을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를 일정한 시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필요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일과표가 작성되었지만, 특별히 후세에 남길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순암이 상세한 일과표를 작성하여 별도의 저술로 남긴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순암 이후 尹最植의 『日用指訣』과 崔東翼(1868~1912)의 「齋居日用三十五首」가 남아있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 하루를 12시각으로 분절하는 것은 도교, 불교적 양생술을 기반으로 하는 明代 程羽文(1644~1722)의 『清閑供』 「二六課」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헌철은 순암을 비롯하여 윤최식, 최동익의 일일 지침서들이 「이육과」의 영향이라고 하였으나,²³⁾ 박종천은 조선 사대부들은 「이육과」의 하루를 12시각으로 분절하는 것만 수용할 뿐 도교, 불교적 양생술을 배제하고 성리학적 수양과 실천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

21) 『星湖全集』 권41, 「夙興夜寐箴圖說」 并圖.

22) 정환희, 「조선 후기 사대부의 일일지침서 연구-성리학적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방학』 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김순희, 「下廬 黃德吉의 『日用輯要』考察」, 『서지학연구』 59, 한국서지학회, 2014; 황위주, 「「士夫日課」를 통해 본 선비의 하루 日常」, 『퇴계학논집』, 퇴계학연구원, 15, 2010. 이외에도 『하학지남』에 대한 연구에서 「일용」편의 내용은 대부분 검토되었다.

23) 조헌철, 「『일용지결』에 나타난 조선 후기 선비의 일상」, 『횡단인문학』 7,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259면.

며²⁴⁾ 순암이 「이육과」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는 추정일 뿐 확실하기 어렵다.²⁵⁾

상권과 하권은 외전상 『소학』의 강령과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독서」·「위학」·「심술」의 3편으로 독서편을 독립시킨 것이 특징이다. 규장각본은 「독서」편에 「讀書之序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율곡이 『격몽요결』에서 제안한 독서 차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黃德吉(1750~1827)의 「讀書次第圖」로 계승되었다.²⁶⁾ 〈讀書之義章〉전면에 『성학집요』의 독서장이 인용되어 있으며, 『주역』의 경문과 주자의 글을 인용한 순서도 『성학집요』와 동일하다. 독서에서도 순서가 중요하므로 〈讀書之序章〉을 두었는데 율곡의 『격몽요결』 독서장과 程端禮(1271~1345)의 『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 그리고 歐陽脩의 독서법을 차례로 인용하였지만, 여기에 대한 순암 자신의 의견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위학」편은 총론을 포함하여 모두 12장이다. 「위학」편은 공부의 순서에 따라 장을 구성했으므로 상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중에 핵심은 〈궁리장〉과 〈역행장〉인데, 궁리와 역행의 전단계로 〈입지장〉과 〈변화기질장〉이 배치되어 있다. 「위학」편 다음에 이어지는 「심술」편은 「위학」편의 내용을 심화시킨 것으로 「위학」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학」편의 〈역행장〉 다음의 〈存養章〉·〈省察章〉·〈克治章〉·〈敦篤章〉은 실질적으로 〈역행장〉에 포함된다. 「위학」편의 말미의 〈論敬章〉·〈論誠章〉·〈異端章〉은 공부과정 전체에 관련되는 敬과 誠, 그리고 공부방법이 잘못된 이단의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순암이 이단으로 지목한 것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도가와 선불교, 양명학 이외에도 呂祖謙의 史學과 陳亮의 事功學이 있다. 순암이 여조겸의 사학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여조겸의 『東萊博議』는

24) 박종천, 「조선시대 士族 일상생활의 유교적 의례화 양상」, 『대순사상논총』 39, 대순사상학술원, 2021, 188~190면. 이 연구는 조선에서 「이육과」가 수용된 사례로 徐有渠, 李圭景 등에 의해 19세기에 편찬된 유서를 들고 있다.

25) 『順菴集』에서 정우문이나 「이육과」와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순암의 다른 저술이나 초록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6) 순암과 하려의 도설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것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율곡이 『격몽요결』에서 제안한 독서 차례는 당파를 넘어 조선학계에 폭넓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함영대, 「조선학자들의 독서 차례에 대한 인식논리-「격몽요결」과 「하학지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문학회』 83, 동방학문학회, 2020.

『춘추좌씨전』 중의 중요한 기사 168개 항목을 뽑아 각각 제목을 달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득실을 성리학에 기반하여 평론한 것이다.²⁷⁾ 이 책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위한 필독서 중의 하나로 각광받았으나, 朴趾源은 당시 양반들의 『동래박의』의 열독을 조롱했는데,²⁸⁾ 순암도 당시 과거의 폐단과 결부시켜 여조점의 사학에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권은 공리와 역행을 중심으로 내면을 바로 잡는 본원의 공부로 구성되고, 하권은 외면을 바로잡는 일용공부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수신과 제가를 중심으로 치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끝나고 ‘평천하’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만 하권 마지막에 「出處」편을 두었는데, 출처의 문제는 사대부의 진퇴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 책의 성격이 일반적인 소학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편장의 항목은 해당 주제에 따라 경전과 선현들의 언행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조목들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대부분 소학공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학지남』 전체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주희의 글이고, 주희 이외에 陸九淵·王守仁·胡安國·薛瑄 등 송·명대 유학자들의 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인용한 서적이나 인물에 대해서 ‘退溪李先生【諱滉 字景浩 明宣間大儒】’·‘朱子【諱熹 字元晦 宋大賢】’·‘童蒙須知【朱子撰】’·‘擊蒙要訣【李栗谷撰】’ 등으로 간략한 정보가 간주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국 인물의 언행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지만, 조선 선현들은 언행을 인용한 것도 적지 않은데 학파나 당파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보이지 않지만,²⁹⁾ 율곡의 『성학집요』나 『격몽요결』의 인용이 두드러진다.

3종의 『하학지남』이 모두 수록하고 있는 제문은 『순암집』 권19에 「題下學指南」으로 실려 있다. 그런데 『순암집』에는 제목 옆에 庚申(1740년)이라고 부기하고, 마지막 한 단락을 삭제했다. 삭제된 부분에는 ‘소학의 예를 본 때 이 책을 만든 것이

27)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래박의』에 대한 연구자체가 아직 초기단계이다. 백진우,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東萊博議』 수용의 의의」, 『한국학문화연구』 54, 한국한문학회, 2014, 참조.

28) 『燕巖集』 권8, 別集, 「兩班傳」, “絶棄鄙事, 希古尙志, 五更常起, 點疏燃脂, 目視鼻端, 會踵支尻, 東萊博議, 誦如水瓢.”

29) 강세구, 앞의 1994 논문, 234면. 이 연구에 따르면 총 56명의 우리나라 선현이 망라되어 있으며, 본국 선현의 언행을 기록한 뜻이 종래 초학을 위한 문헌이 대부분 중국 선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쓰려한 것으로 보았다.

경신년(1740) 여름으로 지금은 거의 50년이 지났다.(倣小學例爲此書, 庶爲自警之一端, 即庚申歲夏也.)'라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문집에서 이 단락이 삭제되면서 『하학지남』을 편찬한 경신년(1740)을 부기하였기 때문에 이 글이 『하학지남』의 편찬 당시에 작성한 제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III. 순암의 하학관과 『하학지남』의 공부론

1. 循序漸進의 공부방법으로서 下學

순암이 말하는 하학은 “알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일상생활의 彝倫”이다. 이러한 하학의 누적으로 상달의 경지에 이르게 되므로 하학을 강조한 것인데,³⁰⁾ 당시 학자들이 하학을 경시하는 것을 문제라고 보았다.

무릇 학문을 할 때는 마땅히 그 시폐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대체로 하학을 탐탁치 않게 여긴 나머지 性命, 理氣, 四端七情의 분변에만 마음을 쏟아 오늘 공부하면 다음날 바로 그 도리를 말합니다. 비록 스스로 학문이 天人의 이치를 꿰뚫었다고 여기지만 그 귀결을 따져 보면 기생이 禮經을 외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³¹⁾

여기서 순암은 성리이론의 탐구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공부하면 다음날 바로 그 도리를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심오한 이론에 몰두하여 하루아침에 상달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학을 경시하고 상달했다고 여기는 것을 순암은 공부방법의 문제로 본 것이다. 순암의 비판을 성리설의

30) 『順菴集』 권19, 「題下學指南」 庚申(1784), “子曰, 下學而上達, 下者卑近之稱也, 卑近易知者, 非日用彝倫而何. 用工於此, 積累不已, 備盡多少辛苦境界然後, 心體爲一, 無艱難扞格之患, 而庶幾觀快活灑然之境, 上達即在此也. 故所謂學者, 只是下學而已.”

31) 『順菴集』 권8, 「答南宗伯 漢朝 書」 丙午, “凡爲學當觀時弊, 今之學者, 大抵不屑於下學, 而徒役心於性命理氣四七之辨. 今日爲學, 明日便說此道理, 雖自謂學貫天人, 夷考其歸, 與娼家之誦禮無異, 此果何益哉.”

이론적 탐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순암의 논점은 하학을 무시한 상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암은 상달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무형의 형이상자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판적이다.³²⁾

『주역』에서 “形而上謂之道，形而下謂之器”라고 할 때의 形자는 上界와 下界가 이른 곳으로 形은 道와 器의 사이에 자리한다. …… 사람으로 말하면 몸은 形이요, 언어동작은 器요, 언어동작의 소이는 道이다. 人事로 말하면 부·자와 군·신은 形이요, 부자간에 인을 주로 하고 군신간에 의를 주로 하는 것은 道요, 仁에서 발하여 효가 되고 義에서 발하여 충이 되는 것은 器이다. 이 세 글자로 미루어 보면 만사만물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³³⁾

순암은 形을 사람에게 있어서는 몸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부자와 군신 등과 같이 실질적 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形이다. 주체(形)의 구체적인 동작이니 행위는 器이고, 그러한 동작이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道이다. 도와 기가 형을 매개로 단절없이 연속된다는 도기일치론을 주장한 것이다.³⁴⁾ 도나 리와 같이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없는 무형의 형이상자는 직접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유형의 실체가 있는 비근한 일(器)이 공부처가 되므로 순암은 하학을 강조한 것이다.

주희에 따르면 천리(理)는 인사(事) 속에 있기 때문에 하학의 인사를 다하는 것이 곧 천리에 통달하는 길이다.³⁵⁾ 그러므로 하학과 상달의 공부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부과정일 뿐이지만, 익히고 살피는 공부과정 없이 상달할 수 없다.³⁶⁾ 순암은 이러한 공부과정을 통해야 천리에 통달하는 것이므로 그 공부과정인

32) 정순우는 순암의 하학관에서 形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순우, 앞의 2003 논문, 98면.

33) 『順菴集』 권7, 「答安正進 景漸 問目」 辛卯, “形而上下之形字，是上下界至處，形居道器之間。……以人言之，身形也，言語動作器也，所以爲言語動作者道也。以人事言之，父子君臣形也，主仁主義道也，發於仁而爲孝，發於義而爲忠器也。以此三字推之，萬事萬物，莫不然矣。”

34)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下學’觀과 ‘道器一致’論」, 『역사학보』 180, 연세대학교 역사학회, 2003, 109면. 이 연구에서는 순암이 복인계 남인 전통의 도기일치관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35) 『朱子語類』 44:106, “下學上達雖是兩件理，會得透徹豈合，只一件。下學是事，上達是理。理在事中，事不在理外。一物之中，皆具一理，就那物中見得箇理，便是上達。”

36) 『論語集註』 「憲問」 37장, “蓋凡下學人事，便是上達天理，然習而不察，則亦不能以上達矣。”

하학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달은 공부처가 아니라 공부의 공효처이다. 그래서 상달이 귀하지만 하학이 핵심이 된다고 한 것이다.³⁷⁾

여기서 순암의 제문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배움은 지와 행의 총명이니, 그 배우는 것은 성인을 배우는 것이다. 성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편안히 행하여 인륜의 지극함(표준)이 되었는데, 성인의 도를 배우는 것은 성인의 지와 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것은 일용의 彝倫을 벗어나지 않는다. …… 공자가 “아래로부터 배워 위로 통달한다”라고 하였으니 아래라는 것은 비근한 것을 말한다. 비근하여 알기 쉬운 것은 일용의 彝倫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여기에서 공부하여 쌓아나가기를 멈추지 않아 많은 괴로움을 두루 겪고 난 뒤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어렵거나 막힐 걱정이 없고 환하게 탁트인 경지를 보게 될 것이니 위로 통달함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된다.³⁸⁾

순암은 후세학자들의 하학공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식탐구와 실천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유학자들의 한결같은 문제의식이므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³⁹⁾ 여기서 彝倫은 효제와 같은 규범과 구분되는 常理이다. 이 때문에 순암은 이륜을 바로 五倫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⁴⁰⁾ 공부해야 할 것이 彝倫이지만, 이륜은 그 자체로 실천되는 규범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이치(實理)이다.⁴¹⁾ 그러므로 하학공부는 인륜의 반복적인 수행이 중요하지만 인륜의 이치에 대한 공리가 선행된다. 상달은 物格知至처럼 공부의 누적으로 드러나는 공효이다. 순암의 하학은 구체적인 일상의 일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이지만 공효처인 상달과 단절 없이 연속되는 공부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진다. 하학으로부터 공부

37) 『順菴集』 권2, 「上星湖先生書」 戊寅, “學貴上達, 莫要於下學.”

38) 「題下學指南書面」, “學者, 知行之總名, 而其所學, 學聖人也. 聖人生知安行, 而爲人倫之至, 學聖人之道, 不過求聖人之知與行, 而不出於日用彝倫之外也. …… 子曰, 下學而上達, 下者卑近之稱也, 卑近易知者, 非日用彝倫而何. 用工於此, 積累不已, 備盡多少辛苦境界然後, 心體爲一, 無艱難扞格之患, 而庶幾觀快活灑然之境, 上達卽在此也.”

39) 이봉규, 앞의 2000 논문, 66면.

40) 『順菴集』 권11, 「經書疑義」〈書〉, “彝倫, 只訓常理也, 不可以五倫言之.”

41) 『順菴集』 권4, 「與南止菴書」 己巳, “實理不出於日用彝倫, 而讀書所以明此理.”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하학을 버린 채 상달하고자 하는 것은 공부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공부의 목적조차 상실하게 된다. 순암이 하학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공부방법이라는 것이지, 단순히 윤리규범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다.

하학은 내몸에 비근한 일에서부터 만사만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므로 실천공부에 순서가 있다. 이론의 도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로 전할 수 없고 구체적인 일상에서 규범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⁴²⁾ 순암은 이러한 본원을 확립하는 하학공부의 방법으로 博文과 自得을 제시하는데, 박문은 남이 모르는 기이한 것을 찾아다니며 섭렵하는 박람의 태도가 아니며, 자득은 스스로 새로운 견해를 세우거나 이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경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독을 통해 경서의 본지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다.⁴³⁾

순암이 말하는 올바른 공부방법이란 결국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循序漸進’을 의미한다. 순암은 子夏와 子游의 교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자하문인장의 초목에 비유한 것에 대하여 …… 이 장으로 보면 子夏의 敎人은 반드시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 하학상달하게 하였고, 子游의 敎人은 틀림없이 엮음이 많았을 것이다.⁴⁴⁾

자유는 자하의 문인들이 쇄소응대 등의 지엽말단의 의절만 잘 지킨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대해 정자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순서가 있으며, 쇄소응대에는 반드시 소이연이 있으므로 쇄소응대로부터 공부하면 성인의 일에 이를 수 있다고 풀이했다.⁴⁵⁾ 쇄소응대가 하학이며 성인의 일에 이르는 것이 상달이다. 순암은 자하가 쇄소

42) 『順菴集』 권8, 「答黃耳叟書」 癸卯, “吾儒着緊用工, 專在下學 …… 其踐實工夫, 則自有次序可循者, 不待愚言, 而收斂之久, 自當有許多義理, 見在目前. 此不可以口傳, 都在着實用力, 以驗其真偽, 則內而心術隱微, 外而動靜云爲, 其於自家日用間, 必有不可得以揜者.”

43) 『順菴集』 권8, 「答黃耳叟 德吉 書」 辛丑, “大抵爲學之方, 必先博文, 必貴自得. 然欲其博文, 則多聞慎言, 多見慎行, 審問明辨, 多識畜德之謂也. 非若世之搜求隱僻之事, 鉤摘奇異之說, 誇多鬬靡, 爲口耳記誦之資者也. 欲其自得, 則體之於心, 驗之於身, 眞積力久, 自然貫通之謂也. 非若世之窮格未到, 意慮橫生, 偶有所見, 自以爲發前人之未發, 至於誣經離道而不知止者也.”

44) 『順菴集』 권11, 「經書疑義」, 〈論語〉 子夏門人章譬諸草木 …… 以此章見之, 則子夏之敎人, 必循序漸進, 下學而上達. 子游之敎人, 必多躐等.

응대와 같은 하학으로부터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달로 나아가게 했다고 한 것이다.

2. 공리-역행의 공부론

순암은 지행을 공부의 총명이라고 보았는데, 하학공부론도 지와 행의 구도에 따라 설정했다.

학문하는 공부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知로 선을 밝히고(明善) 行으로 몸을 성실히(誠身) 하는 것이다. 그 힘을 쓰는 까닭은 教 한 글자에 달려 있으며 誠은 공을 거두는 곳이다. 이제 그 차서와 조열을 말하면 다음과 같으니 모두 12장이다.

按學問工夫，只有兩道。知以明善，行以誠身，而其所以用力者，在乎教之一字，而誠又爲收功之地。今言其次序條列如左，凡十二章。

인용문 앞부분은 『성학집요』 「총론수기장」을 인용한 것으로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을 뿐이다.⁴⁶⁾ 명선과 성신은 『중용장구』 20장의 주석에 보이는데,⁴⁷⁾ ‘教’가 어떤 맥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선과 성신은 『중용』의 誠과 관련되므로 ‘교’는 『중용』 1장 “修道之謂教”이 아니라 21장 “自明誠謂之教”의 교이다. 自明誠은 먼저 선을 밝힌 뒤에 誠의 경지에 이르는 공부를 말하는 것으로, 賢人의 배움으로써 가르침을 말미암아 들어가는 人道이다. 천도인 誠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밝히는 지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힘을 쓰는 것은 교에 달려 있고, 공효를 거두는 곳은 성⁴⁸⁾’이라고 한 것이다. 自明誠謂之教의 教자는 學과 같으므로⁴⁹⁾ 이

45) 『論語集註』 「子張」 12장, (註) “程子曰, 君子教人有序 …… 灑掃應對是其然, 必有所以然. …… 自灑掃應對上, 便可到聖人事.”

46) 『栗谷全書』 권20, 「聖學輯要·修己第二上」, 摠論修己章第一, “修己工夫, 有知有行, 知以明善, 行以誠身.”

47) 『中庸章句』 20장, “誠者, 擇善而固執之者也.” 주) “擇善然後, 可以明善. 固執而後 可以誠身.”

48)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敬과 대비하여 誠을 공효를 거두는 곳이라고 했다(『栗谷全書』 권21. 「聖學輯要·修己第二中」, 正心章第八, “敬是用功之要, 誠是收功之地.”).

49) 『朱子語類』 64:43 “自明誠, 謂之教, 此教字是學之也.”

때의 교는 배움 즉 공부이며, 明善(知)과 誠身(行)의 공부를 통해 그 공효를 거두는 상달의 경지(誠)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암의 공부론은 주희의 거경궁리론에 기반을 두었지만 약간 변형된 것이다. 거경궁리론에 있어서 퇴계와 율곡도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다. 퇴계는 리의 體化를 위한 居敬을 우선시하여, 평소에 경을 함양하는 미발함양을 강조했고, 율곡은 리를 인지하는 窮理에 역점을 두고 심을 맑고 고요하게 하는 기질변화를 강조했다.⁵⁰⁾ 순암이 지행의 구도로 공부론을 제시하는 것은 지식탐구가 실천으로 귀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천하의 사물을 끝까지 궁구하고자 하더라도 또한 본말과 선후가 다를
이 있으니 항상 변별하여 먼저 심신과 인륜상에서 공부해나가야 한다.

按雖欲盡窮天下之事物，亦有本末先後之不同，常辨別，先於身心人倫上做將來。

공부의 선후로 말하면 지가 앞서지만 실천으로 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이 중요하다 한 것은 주희의 지행론과 차이가 없다.⁵¹⁾ 주희의 격물도 궁극적으로는 도덕수양에 종속되는 것이지만, 순암은 격물의 대상을 내물에 절실한 일용의 인륜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인륜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치지이다. 순암의 하학공부가 실천으로 귀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위학」편의 장 구성을 다시 살펴보면, 총론-立志-變化氣質-窮理-力行-存養-省察-克治-敦篤-論敬-論誠-異端이다. 이 장의 순서는 다시 총론을 제외하고 <입지장>과 <변화기질장>은 공부의 전단계, <궁리장>부터 <돈독장>까지는 실질적인 공부과정, <논성장><논경장><이단장>은 공부의 마무리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공부의 전단계에서 제시한 ‘입지’와 ‘변화기질’은 율곡의 공부론에서도 강조된 것이다.

사람이 힘써 실천하고자 하더라도 이 뜻이 서지 않으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만두어 도에 들어갈 길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50) 이러한 퇴계와 율곡의 학문적 특징을 ‘덕성모델’과 ‘인식모델’로 대별하기도 한다(문석윤, 『『퇴계집』所載 栗谷 李珥 問目 자료에 관하여: 退溪와 율곡의 對話』, 『퇴계학보』 122, 퇴계학연구원, 2007, 124면).

51) 『朱子語類』, 9:1, “知·行常相須，如目無足不行，足無目不見。論先後，知爲先；論輕重，行爲重。”

또 공리보다 우선되는 것이다. 按人雖欲力行, 此志不立, 則乍作乍輟, 無以入道. 故必貴立志, 而又先窮理矣.

배움은 뜻을 세우는 것이 귀하지만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뜻이 향하는 것이 올바른을 잃을 수 있다. 按學貴立志, 而不能變化氣質, 則志之所向, 或不能不失其正矣.

뜻을 세우는 것은 도덕실천의 의지를 확립하는 것이며, 뜻을 세웠더라도 공부의 방향을 잃지 않고 면강하기 위해서는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기질변화는 결국 자신의 사욕을 이기는 극기복례이다. 이 때문에 〈변화기질장〉을 〈극치장〉과 연결시키고, 『격몽요결』의 革舊習을 조목으로 붙여 나태하고 방종한 습관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마무리 단계는 공부를 총결하는 것으로 敬과 誠 그리고 이단에 대한 내용이다. 하학공부에서 敬과 誠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誠’이 핵심이다. 순암은 誠이 知와 行을 총괄하는 공부이며, 공효를 거두는 곳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하학공부는 天道인 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 『중용』에 따르면 誠은 聖人の 경지이므로 보통 사람은 선을 택하여 굳게 지키는 것(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이 誠에 이르는 방법이다. 택선이 ‘知로 선을 밝히는 것(明善)’이고 고집이 ‘行으로 몸을 성실하게 하는 것(誠身)’이다. 이렇게 하학공부는 『중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의 경지 즉 상달하기 위한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술」편의 마지막장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상편에서 爲學을 논하면서 〈論誠章〉을 끝에 붙였고, 이 편은 心術을 말하고 〈誠實章〉으로 맺었다. 대개 사람이 위학하는 까닭은 배워서 선을 밝히려는 것이고 선한 것을 마음에서 살피고 행동으로 체험하려는 것이니 다만 하나의 誠일 뿐이다.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성념해야 한다. 하권의 여러 공부는 또한 여기에서 미루어 간 것이다.

按上篇論爲學, 而論誠章以尾之, 此篇言心術, 而誠實章以結之. 盖人之所以爲學, 學之所以明善, 善之所以察乎心體乎行, 只是一箇誠而已. 學者, 當省念焉. 下卷諸工夫亦自此而推之矣.

여기서 ‘마음에서 살피고 행동으로 체험(察乎心體乎行)’한다는 것은 곧 誠身을 의미한다. 앞에서 공부의 관건은 ‘教’에 달려 있다고 했으므로 성의 경지에 이르는 상달이 하학공부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 분명하다. <논성장>에서 誠을 ‘성인의 근본이며 백행의 근원’ · ‘진실무망함’ · ‘천도’ · ‘實理’ · ‘實心’ 등 다양하게 풀이한 것을 인용하고, 「심술」편의 <성실장>에서 “학문의 도를 다하더라도 만약 誠實의 뜻이 없으면 모두 헛되고 부질없는 거짓(盡其道而或無誠實之意, 則虛假矯僞)”이 되고 만다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것은 성이 공부의 최종 목표일 뿐 아니라 공부의 과정에서 끊임 없이 환기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순암은 성이 지행의 총괄(誠者知行之總括)이며, 명선과 성선도 하나의 誠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경은 공부의 모든 과정에서 마음가짐과 기본 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敬字貫通知行 學者始終之一大工夫)으로 제시된다. 순암은 경을 <존양장>과 연계시키는데, 후술하겠지만 순암의 존양은 심을 수렴하여 보존하는 存心の 의미이다. 『대학혹문』에서 경의 조목으로 程頤의 ‘主一無適’과 ‘整齊嚴肅’, 謝良佐의 ‘常惺惺’ 그리고 尹焞의 ‘其心收斂 不容一物’ 네 가지(四條說)를 거론하는데⁵²⁾, 순암은 주희가 말한 畏⁵³⁾도 조목에 포함시켰다.

하학공부의 실제 과정은 <궁리장>과 <역행장>이다. 궁리는 격물치지로 진행되는 본격적인 공부이다. 순암의 하학공부가 실천에 역점을 두지만, 실천은 철저한 치지에 바탕을 두고 진행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치지는 시조리의 일이니, 치지가 우선되지 않고 한갓 행에만 힘쓴다면 맹인이 애꾸눈 말을 타고 한밤중에 깊은 못을 만나는 것이다.

按致知, 始條理事, 不先致知, 而徒務於行, 則所謂盲人騎瞎馬, 夜半臨深池.

역행은 종조리의 일이다. 역행에 힘쓰지 않고 한갓 앞에만 일삼는 것은 자신의 한없는 보배는 내버려둔 채 문전걸식하는 거지 흥내를 내는 격이니⁵⁴⁾ 비록 폭포수 같은 언변을 쏟아내도 그것을 아는 군자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按力行終條理事也. 不務力行, 而徒事於知, 所謂拋各自家無盡藏, 沼門持鉢效貧兒,

52) 『大學或問』 0-1

53) 『心經附註』 「敬以直內章」, “先師敬字之義, 惟畏爲近之.”

54) 『王文成全書』 권20, 「詠良知四首示諸生」 참조.

雖有懸河之辯，之知君子不貴焉。

치지는 ‘시조리의 일’, 역행은 ‘중조리의 일’이므로, 궁리와 역행이 공부의 핵심이 된다. 두 가지가 모두 힘써야 할 공부이므로, 치지가 결여된 실천은 ‘맹인이 애꾸눈 말을 타고 한밤중에 깊은 못을 만나는 것처럼 위태로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궁리는 독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서장〉은 별도로 독립시킨 것이다. 실천으로 귀결되지 않는 지식탐구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의 강도를 높여 ‘자신의 한없는 보배는 내버려둔 채 문전걸식하는 거지 흥내를 내는 격’이라고 했다. 순암은 치지를 역행의 근본이며 급선무라고 하는데, 성호가 순암을 처음 만날 때에도 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⁵⁵⁾ 궁리의 구체적인 조목은 『증용』의 博學·審問·慎思·明辯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역행은 이 네 가지 조목에 근본을 둔다.

역행은 존양과 성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존양 뿐 아니라 극치도 순암은 모두 행의 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역행장〉 다음에 〈존양장〉·〈성찰장〉·〈극치장〉을 차례로 배치했지만, 독립된 장으로 구성된 〈존양장〉부터 〈돈독장〉은 실제로는 〈역행장〉의 하위항목이다. 존양과 성찰은 거경과 궁리에 해당하는데, 존양은 靜時공부이며, 성찰은 動時공부로 구분된다. 퇴계는 존양을 오로지 정시로 말한 것이며 함양이 동정을 겸해서 말한 것으로 보았다.⁵⁶⁾ 율곡은 『맹자』의 존양은 본래 동정을 관통해서 말한 것으로 보고, 『대학』의 성의정심과 같다고 하였다.⁵⁷⁾ 순암은 존양을 ‘미발 때에는 보존하여 잃지 않고 이발 후에는 길러서 해치지 않게 하면 본원이 점점 견고해져서 들뜨고 치달리는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未發之前存而不失，已發之後養而不害，則本源漸固，而無游走之憂矣).’라고 하여, 정호가 ‘놓쳐버린 마음을 단속하여 몸으로 되돌아 들어오게 한다.’⁵⁸⁾라고 한 것처럼 존심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경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존양은 결국 持敬의 수렴공부로

55) 『順菴集』 권16, 「函丈錄」, “先生曰，士當致知爲學，歸重于實行。然而淳謹之人，止務踐履，循塗守轍而已，故見處終不灑然。士當以知識爲主。”

56) 『退溪集』 권40, 「答窩姪問目 中庸」, “存養，專以靜言。涵養，兼動靜言。”

57) 『栗谷全書』 권21, 「聖學輯要」3, 〈正心章〉(自註) “孟子所謂存養，通貫動靜而言，卽誠意正心之謂。”

58) 『近思錄』 권4, 「存養」, “只是欲人將已放之心約之，使反復入身來，自能尋向上去，下學而上達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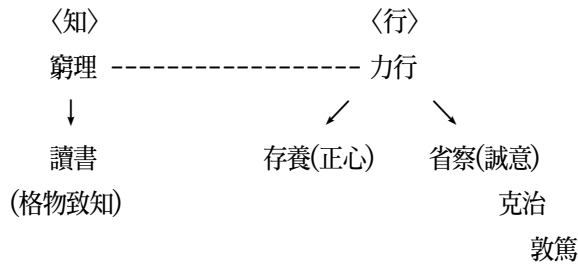
귀결된다.

성찰은 기미를 살피는 것으로, <성찰장>에 조목으로 ‘근독’을 붙였다. 근독은 『중용』 수장의 “莫見乎隱 莫顯乎微”의 幽獨과 『대학』 성의장의 愼獨 두 가지가 있다. 순암은 성찰에 신독의 의미를 취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는 毋自欺를 핵심으로 보았다. 성찰은 誠意와 연계되는데, 순암에 따르면 진실무망하여 無邪함이 誠의 의미이다. 진실무망하고 無邪하므로 理慾을 ‘審問’하고 義利를 ‘明辨’하는 것이 성찰이다. 앞에서 존양은 정심에 연계시켰는데, 여기서 성찰을 성의에 연계시킨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正心’과 ‘誠意’로 존양과 성찰을 파악한 것이다.

존양과 성찰이 순암의 하학공부에서 역행에 포괄되므로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존양 또는 함양은 맹자 이후 복잡한 유학의 심성론과 얽혀있는 것이지만, 순암은 지경의 심수렴공부로 파악할 뿐이다. 존양은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人事接物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고요할 때 敬의 태도를 유지하여 심을 수렴하여 보존하는 存心을 의미한다. 응사접물의 때는 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므로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은 인사접물 시에 진실무망하고 無邪하게 理慾과 義利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양이나 성찰이 모두 구체적인 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순암은 존양을 심의 미발이나 지각의 문제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존양은 단지 심을 수렴하여 분산되지 않게 하는 존심에 중점이 있지만 主靜으로 내면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단속하는 경의 조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찰은 인사접물에 이욕과 의리를 살피는 것이므로 외면으로 드러나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의 주체인 내 마음이 진실무망하여 사가 없도록 하는 성의가 요구된다. 또한 무엇이 理慾과 義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理와 義에 대한 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존양이나 성찰은 모두 인사접물이라는 구체적인 행위(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행에 포함시켰다. 하학공부에서 역행은 구체적인 인륜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고, 치지는 彝倫이라는 常理로 한정된다.

<성찰장> 다음에 <극치장>을 붙이고 <극치장>에 다시 <돈독장>을 붙여 하위항목이 되게 했는데, 사욕을 이겨 본심을 확충하고자 하는 극기복례가 극치이고, 극치를 통해 사욕을 이겨 본심을 확충한 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면강을 이어가기 위해 돈독이 필요하고 본 것이다. 극치하여 사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질변화가 필요하므로 <극치장>을 다시 <변화기질장>과 연계시켰다.

이러한 「위학」편의 편장 순서에 따른 공부론은 지행의 구도에 근거한 공리-역행의 체제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 공리-역행 체제

순암의 공리-역행의 공부론은 『중용』에 기반하고 있지만, 공부의 과정은 『대학』을 응용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공리장〉은 격물치지이고 〈역행장〉은 정심(存養)과 성의(省察)이다. 독서를 통한 이룬의 학습과정인 공리는 실천을 위한 것이고, 실천은 치지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공리가 역행에 앞서지만 지와 행은 병행되어야 하는 공부이므로 공리-역행의 체제로 공부과정을 구성한 것이다. 「심술」편에서는 팔조목의 순서대로 〈성의장〉과 〈정심장〉을 차례로 배치하여, 「위학」편의 내용을 심화시켰다.

爲學의 조목은 위의 편에서 이미 갖추어 설명하였는데, 그 핵심은 心術이 올바름을 얻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별도로 한 편을 만들어 誠意, 正心, 養氣의 법을 상론하니, 상편의 存養, 省察 그리고 〈논경장〉과 합해서 보아야 한다.

按爲學條目, 既具于上, 而其要莫過於心術之得其正也. 故今則別爲一篇, 詳論誠意正心養氣之法, 當合上存養省察論散章而觀之也.

「심술」편은 총 8장으로, 장의 구성은 誠意-正心-養氣-操存-喜怒-逸慾-器量-誠實이다. 성의, 정심, 양기의 방법을 상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세 가지가 「심술」편의 중심이 된다. 순암은 操存을 존양의 異名으로 보기 때문에 〈조존장〉은 실제로 〈정심장〉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기장〉 이하 〈기량장〉이 양기의 방법에 대한 것

인데, 양기는 志氣를 함양하는 것과 血氣를 기르는 것 두 가지로 제시된다. 〈희로장〉은 감정의 조절, 〈일욕장〉은 심신의 욕구제어, 〈기량장〉은 식견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술」편은 「위학」편의 심화이며, 역행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은 전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IV. 맺음말 : 순암 공부론의 특징과 의의

이 글에서는 『하학지남』 상권을 중심으로 순암의 하학공부론 체제를 고찰한 것이다. 특히 상권 위학편의 편장이 공부의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에 주목하여, 순암의 하학이 바로 상달하기 위한 공부방법이며, 궁리-역행의 체계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하학지남』이 『소학』의 사례를 모방했다는 순암의 언급이 있지만, 실제 편제의 구성에서 『소학』과 차이를 보인다. 순암의 하학공부는 구체적인 일상의 彝倫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이론이다. 그런데 이론은 그 자체가 실천되는 효제와 같은 인륜규범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인륜의 이치이다. 이 때문에 순암은 하학공부가 인륜의 실천으로 귀결되어야 하지만, 인륜의 이치에 대한 앎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행의 구도에 따라 궁리-역행의 공부론 체계를 세운 것이다.

궁리-역행의 공부론은 위기지학을 목표로 순서점진하는 공부방법이다. 순암이 하학을 강조하는 것은 하학이 아니면 상달할 길이 없다는 공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이지, 인륜규범을 단순하게 실천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학을 경시하고 고원한 형이상학 이론에 천착하여 상달했다고 여기는 것은 공부방법이 잘못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부의 목적도 상실한 것이 된다.

궁리는 致知로 진행되는데, 格物의 대상은 일용의 彝倫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치지가 역행의 근본이므로 먼저 해야 할 급선무이다. 순암은 실천에 앞서 치지를 강조하며, 궁리의 조목으로 『중용』의 “學問思辯”을 제시하기 때문에, 『하학지남』의 성격이 일반적인 소학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행은 존양과 성찰로 진행되는데, 존양은 持敬의 심수렴 공부로 귀결되는 正心이며 성찰은 毋自欺의 慎獨으로 귀결

되는 誠意이다. 이 때문에 존양과 성찰을 『대학』의 正心과 誠意로 부연하였다. 존양과 성찰은 모두 人事接物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와 연관된다. 결국 공리를 통해서 탐구된 이륜의 이치를 구체적인 인륜규범으로 실천하는 것이 역행이다.

하학공부는 먼저 도덕적 실천의지를 확립하는 立志와 기질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치지가 역행에 선행하며, 존양과 성찰이 모두 역행에 포함되는 것이 순암 공부론의 특징이다. 『하학지남』 상권 「爲學」편은 이러한 공부순서에 따라 章을 배치한 것이고, 「心術」편은 「위학」편의 내용을 심화시킨 것이다. 순암은 敬을 공부의 전과정에 관통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誠은 공부의 공효처로 하학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경지로 설정했다. 그러므로 성은 하학공부의 최종 귀착지인 상달이다. 이것은 순암의 하학이 구체적인 일상의 일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이지만 공효처인 상달과 단절없이 연속되는 공부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리-역행의 하학공부론의 기반은 『중용』에 두고 있었지만, 공부의 과정은 『대학』의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로 진행된다. 실제 공부 내용은 灑掃應對와 같은 소학의 공부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공리-역행의 공부론은 많은 부분 율곡의 공부론을 참조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다. 순암은 실천과 괴리된 지식탐구에 비판적이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하학공부를 통한 인격 확립을 추구할 뿐이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순암의 학문적 지향은 기존 성리학의 한계나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성리학의 공부론은 태극 또는 천리와 같은 형이상학적 근거에서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순암은 오직 일상생활의 범위내에서 근거(彝倫)를 확보하고 규범(人倫)을 실천하고자 했다. 순암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유교의 본지에 충실하면서도 나와 주변을 돌아보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공부론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것이 『하학지남』에서 보여주는 成己成物의 爲己之學에 도달하기 위한 올바른 공부방법으로서 하학이다. 그러므로 『하학지남』은 『小學』과 성격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詩經』

『論語集註』

『中庸章句』

『朱子語類』

『大學或問』

『心經附註』

『近思錄』

王守仁, 『王文成全書』

安鼎福, 『順菴集』

李瀾, 『星湖全集』

朴趾源, 『燕巖集』

李珣, 『栗谷全書』

李滉, 『退溪集』

안정복 저, 『하학지남』, 『순암전집』 二, 여강출판사, 1984

정순목, 『조선시대 교육명저순례』 『교육신서』, 128, 배영사, 1987

안정복 저, 이채구 역, 『국역 하학지남』, 신성문화사, 1991

안정복 저, 이채구 역, 『국역 하학지남』, 장서원, 2006

강세구, 「『하학지남』을 통해 본 안정복 학문의 성격」,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1994

김순희, 「下廬 黃德吉의 『日用輯要』考察」, 『서지학연구』 59, 한국서지학회, 2014

김인규, 「순암 안정복의 학문적 연원과 그 특징」, 『한국사상과 문학』 2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노대환, 「愼村 黃泌秀(1842~1914)의 사상적 행보」,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문석운, 「『퇴계집』 所載 栗谷 李珣 問目 자료에 관하여; 退溪와 율곡의 對話」, 『퇴계학보』 122, 퇴계학연구원, 2007

박종천, 「조선시대 士族 일상생활의 유교적 의례화 양상」, 『대순사상논총』 39, 대순사상학술원, 2021

백진우,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東萊博議』 수용의 의의」, 『한국학문화연구』 54, 한국한문학회, 2014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下學’觀과 ‘道器一致’論」, 『역사학보』 180, 연세대학교 역사학

회, 2003

- 이봉규, 「순암 안정복의 유교관과 경학사상」,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학회, 2000
- 이정행, 「하학지남에 나타난 순암 안정복의 교육사상」, 『사회과학연구』 7, 광주대학교, 1997
- 이채구, 「안정복의 『하학지남』」, 『교육연구』 9,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0
- 정낙찬, 「순암 안정복의 초등교육사상-하학지남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12, 한국교육철학회, 1994
- 정순우, 「순암 안정복의 공부론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6, 한국실학학회, 2003
- 정철민, 「순암의 공부론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하학을 중심으로」, 『동방학』 4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 정환희, 「조선 후기 사대부의 일일지침서 연구-성리학적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방학』 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 조성애, 「순암 안정복의 하학론-『하학지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1), 한국교육사학회, 2010
- 조헌철, 「『일용지결』에 나타난 조선 후기 선비의 일상」, 『횡단인문학』 7,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 진원, 「『소학』의 구성내용으로 본 주자의 소학론」,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최동희, 「안정복의 서학 비판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5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1976
- 함영대, 「조선학자들의 독서 차례에 대한 인식논리-「격몽요결」과 『하학지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문학』 83, 동방학문학회, 2020
- 황위주, 「「士夫日課」를 통해 본 선비의 하루 日常」, 『퇴계학논집』, 퇴계학연구원, 15, 2010

On the learning theory of 'Kungni(窮理)-Yök-haeng(力行)' by An Chöngpok: Focusing on the *Hahakchinam*(下學指南)

Park, Ji-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Kungni(窮理)-Yök-haeng's(力行) theory of studying Lower-Level Learning, centered on An Chöngpok(安鼎福, 1712~1791)'s *Hahak chinam*(下學指南). The study method he proposed allows for gradual improvement in order with the goal of learning for the sake of self-improvement(爲己之學), the study of the sage man. Based on *The Mean*(中庸), he designed a study theory that could lead to knowledge exploration into practice. Because he limited the scope of knowledge exploration to the everyday norms and principles of human relationships, the learning content does not go beyond the scope of elementary learning such as scattering, sweeping, and question-and-answer. The learning theory he proposed was designed to help people reach the highest level through the practice of everyday norms. Therefore, the reason he emphasized the practice of everyday norms was because it was a way to reach the highest level, not because the purpose was to practice the norms themselves.

He argued that before starting learning,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moral commitment and change bad habits and attitudes. The learning process he proposed was through knowledge exploration and practice. Because he believed that a thorough search for knowledge is fundamental to practice, he was convinced that the pursuit of knowledge through reading precedes practice. The Wihak(爲學) section of the *Hahak chinam* commercial volume arranged chapters according to this learning order, and the Simsul(心術) section deepened the contents of the Wihak section. Therefore, the order of sections and chapters in this book is the order of learning. He stated that what is needed in the entire process of learning is an attitude of Kyöng(敬), and that the final destination of study is the highest level of Söng(誠). The learning theory of Neo-Confucianism justified the norm on a metaphysical basis. But An Chöngpok secured the rationale and norms

of learning theory only within the the scope of everyday life. So he proposed a simple way of studying that was true to the original meaning of Confucianism, but also allowed you to reflect on yourself and your surroundings. This is the subject of this book: "Hahak (下學)" as the right way to study. Because of this, *Hahak chinam* is a book with a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rimary Learning*(小學).

Key Words : An Chǒngpok, *Hahak chinam*, theory of learning, Kungni(窮理)-Yōk-haeng(力行), Knowledge and Action, A learning method that gradually improves according to the order(循序漸進), the principles of human relationships(彝倫)

